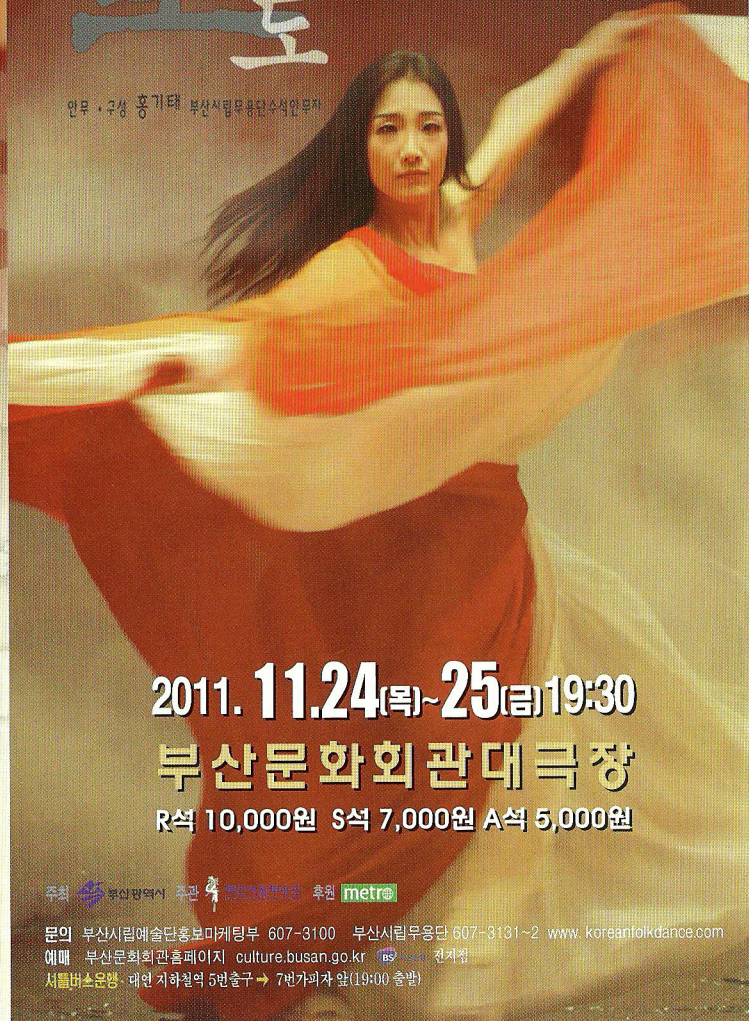


부산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
The 65th Bi-annu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

蘇塗도

안무 : 구상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소석안무자



2011. 11.24(목)~25(금) 19:30

부산문화회관대극장

R석 10,000원 S석 7,000원 A석 5,000원

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후원 metra

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-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-3131~2 www.koreanfolkdance.com

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.busan.go.kr 전지점

서울버스운행 : 매일 지하철역 5번출구 → 7번가까자 앞(19:00 출발)



안무·구성 홍기태
(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)

춤으로 삼한시대를 열며....

운명처럼 만나고, 마치 숙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
'자서여'와 '온조'의 짧고도 아픈 사랑 이야기....

소도의 기억처럼
소도의 흔적처럼
그리고...

작품의도

작품 <소도(蘇塗)>는 고대사를 바탕으로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의 접점을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. 단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티브로 하되, 각색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고자 하였다. 그래서 <소도>는 실존의 국가와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그 흔적들을 더듬으며 시대 속에서 영겨있는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기획된 작품이다.

안무의도

이번 무대에 오르는 <소도(蘇塗)>는 여제주(女祭主)로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 '자서여(紫胥餘)'를 중심으로 백제건국신화의 주인공인 '온조(溫祚)'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, 이별을 '소도'라는 특정한 공간과 삼한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재창작과 각색을 시도한 작품이다. 역사 속에서 숙명처럼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통해 한 시대가 번성하고 다시 쇠퇴해지며 그리하여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간의 긴 타래들을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.

소도

序幕. 자서여 紫胥餘

B.C 48년

당시 삼한(三韓)을 통치하던
마한의 목지국(目支國) 한 토호에서
시대와 역사의 수레를 끌게 될
한 여식이 태어난다.
성은 자(紫)이고
이름은 서여(胥餘)...
마치 그녀의 운명처럼
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
바람은 온 세상을 삼킬 듯 거세게 불던 시월막사리
자서여라는 이름이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.

제 1 장. 그곳 소도 蘇塗

'자서여'
성인이 되어 천군으로 소도의 주인이 되다

제 2 장. 온조 溫祚

'온조'의 남하(南下) 그리고 야망과 포부...

제 3 장. 무거운 운명 遭遇

온조는 목지국의 정세를 살피던 중...
목지국 병사와 전투 그리고 부상.
'신목(神木)' 아래서 의식을 읽는다.

제 4 장. 하늘을 거스르다....

운명처럼 만나고,
마치 숙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 '자서여'와 '온조'의
짧고도 아픈 사랑...

제 5 장. 멈춰선 역사 歷史

'자서여'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소도, 그리고 짧디 짧은 사랑의 대가로 결국 목숨까지 잃고야 마는 한 여인에 대한 서정

제 6 장. 그리고 숫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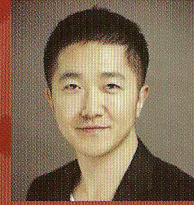
온조가
다시 군사를 이끌고
목지국으로 내려왔을 때
이미 소도는 화염에 허물어졌고
자서여는 세상으로부터
그리고 온조로부터 떠나고 없었다.
붉은 눈물을 흘리며
회한의 순간을 끌어안아도
그녀는 가벼운 육신만을 남긴 채 하늘로 떠나 버린 것이다.
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
또 새로운 수레바퀴가 돌게 될 것이다.
소도의 기억처럼
소도의 흔적처럼
그리고 숫대처럼...

주역

첫째날 주역 11.24(목)



자서여 박창희



온조 최의욱

둘째날 주역 11.25(금)



자서여 안주희



온조 강모세



제왕 장래훈

특별출연(소녀 자서여) : 강성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

Staff

훈련지도 : 서정숙

무대감독 : 서종철

대본연출 : 조주현

조명감독 : 곽동인

음악 : 최상인

음향감독 : 전인수

무대디자인 : 이대업

비디오촬영 : 이상아

무대어시스트 : 유승용, 정재엽, 유정훈

사진촬영 : 이호형

의상디자인 : 민천홍

특수조명 : 김철현

P&Design : 장준규

기획 : 조영미 홍보 : 김태훈 소품 : 안정숙 진행 : 김미란